

## 말레이시아 양태균 윤채영 선교사 2019년 4월 선교보고

이학진 담임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만끽하는 3월입니다. 가끔 내리는 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산에는 연한 순들이 드문드문 무리를 지어 있고 가끔 산벚꽃이 화사하게 조화를 이룬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봄입니다. 날씨도 좋고, 향기로운 꽃들도 여기저기 피어나고 향긋한 봄내음과 화사한 봄기운이 점점 짙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도 향긋하고 화사한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점점 짙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선을 따라 쿠알라 룸푸르까지 연결하는 철도사업에서 새 정부는 사업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게 일감을 밀어주기식의 불공정거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따봉 하지(Tabung Haji)에 관한 재정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3,245만 명이며, 말레이계(62%:10%정도가 원주민-말레이시아 반도, 사바와 사라왁), 중국계(22%), 인도계(7%), 기타(1%), 외국인(8%)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53 퍼센트가 넘는 말레이계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도(무슬림)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신조암송, 하루 5회 기도, 구제, 라마단 금식, 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란 이슬람 신자가 메카의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적 의례에 참가하는 일로써, 알-쿠란(이슬람경전)에 따르면 무슬림은 일생에 한번은 메카의카바 신전을 찾아 순례를 해야 합니다. 정규적인 순례를 마친 자를 남자의 경우 “하지(Haji)”, 여자의 경우 “하자(Hajah)”라 호칭을 부릅니다.

이곳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메카를 순례하기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메카 순례를 위해 대략 6-7 백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인에게도 그정도의 비용은 부담이 되겠지만,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에게는 어려운 살림에 엄청난 비용인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지 순례를 위한 기금협회(하지기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으로 부당하게 주식을 팔고, 배당금을 조작하여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슬람 국가답게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도의 이슬람 국들에서 빌려온 샤리아 채권(SUKUK)을 갚을 때까지 국민세금에서 할당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4월 메트로폴리탄 로컬교회 상황



### 2.1. 4월샘(Sekolah Alkitab Malaysia)신학교 야간반



## 2.2. 4월 샘(Sekolah Alkitab Malaysia)신학교 모듈러과정(주간 특별과정)

#.주간에는 개종한 몇 이웃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4월 원주민교회협력사역 / 성경공부반 : 중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자녀를 교육하고 있음.



기도제목:

1. 우리남성교회가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모임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2. 현지 메트로폴리탄 로컬교회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3.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적성장과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 되기를 위해
4. 샘 신학교가 부흥발전하고 확장되도록, 학생들이 여러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5.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6. 2019년 신학교 커리큘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수 요원들을 보내주소서
7. 선교사 가정에 필요를 따라 채워지도록

양태균 윤채영 홍겸, 홍희, 홍현, 홍서 드림.